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문화를 위한 새로운 장(場) A New Field of Church Community and Catholic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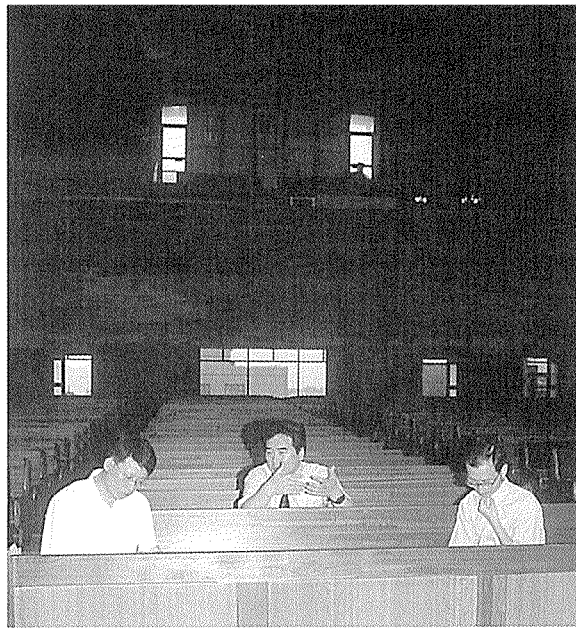
대담자 / 장림종(연세대 건축과 교수)

설계자 / 최영집((주)건축연구소 탐)

by Choe Young-Jeep Vs Jang Rim-Jong

일 시 / 98. 8. 12(수) 14시

장 소 / 동안교회



대담광경(왼쪽: 정인하, 가운데: 최영집, 오른쪽: 장림종)

장림종 _____ 우선 최영집 선생님의 동안교회 신축을 축하드립니다. 동안교회의 교인으로서 동안교회 계획에 참여하시게 된 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집 _____ 동안교회는 20여년전부터 제 신앙생활의 구심점입니다. 부족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언제나 소박하고 푸근하고 사랑스러운 교회로 마음속에 자리잡은 교회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인 교회 건축이 거론되기 시작하다가 1994년에 새성전 건축을 결의하고 1995년에 설계를 지명 공모하였습니다. 본교회를 설계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도 몇몇 다른 건축가들과 함께 지명을 받게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지요. 많은 논란 끝에 제가 당선작가로 선정되었고 그후 10여 차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1996년 5월 설계를 일단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림종 _____ 교회건축은 건축계 내에서 관심을 두고 가장 많이 논의되는 건축유형중의 하나입니다. 일련의 작품을 통하여 교회건축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몇몇의 건축가 중의 한 분이라 생각되는데요, 우선 교회건축을 해오고 있는 건축가로서 교회건축에 대한 철학 혹은 자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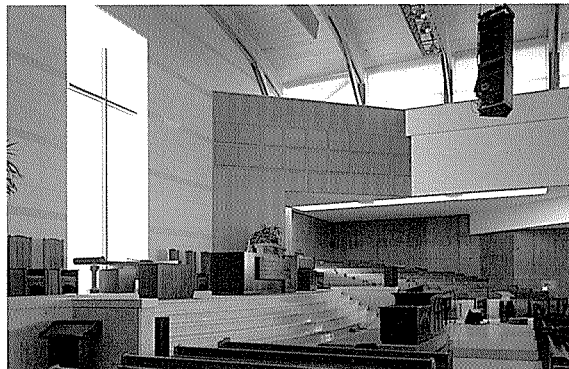
설명해 주시죠.

최영집 _____ 교회건축은 시대에 따라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건축의 경제성이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교회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써의 기능이 충실해야 하고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공공시설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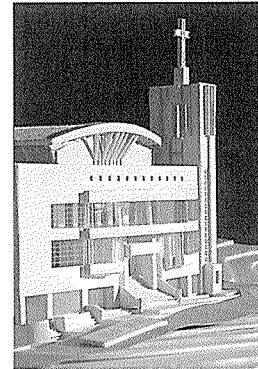
세속으로부터 보호되는 성역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공간인 동시에 말씀과 찬양, 은혜가 충만한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배공간만으로 교회의 목적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이 생활과 이상을 담는 그릇이듯이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교회생활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교회건축의 주제로 삼는 "만남과 나눔"이라는 명제가 교회의 각 요소에 골고루 배어 있으며 교회건축을 통해 항상 교회생활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교회도 가고 싶은 교회가 우선 되어야겠지요. 거기에 건축의 힘이 많이 좌우될 것입니다. 교회생활은 예배를 정점으로 하여 교육과 친교, 전도와 봉사 등으로 건축과 함께 펼쳐지는 것이지요



동안교회



동안교회



동안교회 모형

장림종 _____ 도시 속에서 교회가 위치하는 곳 그리고 그 곳의 역사는 교회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동안교회의 개략적인 역사와 교회가 서 있는 주위 지역에 대해 얘기를 해 주시죠

최영집 _____ 6.25전쟁후 서울의 인구증가로 동대문밖에 신주거지역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청량리를 중심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경희대와 외국어대학 사이 이문동도 넉넉하지 못한 소시민들의 평범한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고 작은 교회들이 하나 둘씩 개척되게 됩니다. 당시 신앙의 선배들은 생활이 어려울 때인데도 자기집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며 개척하는 신앙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1958년 6월 대지 85평에 건평 28평의 목조예배당을 건축하고 창림예배를 드렸으니 올해 40주년이 되고 같은 위치에 3번째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부촌이거나 넓은 주거지역도 아닌 조건인데 특별한 은총으로 부흥하여 현재 주일 장년 출석이 2천6백명 정도되는 작지 않은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미 지역교회의 수준은 넘어섰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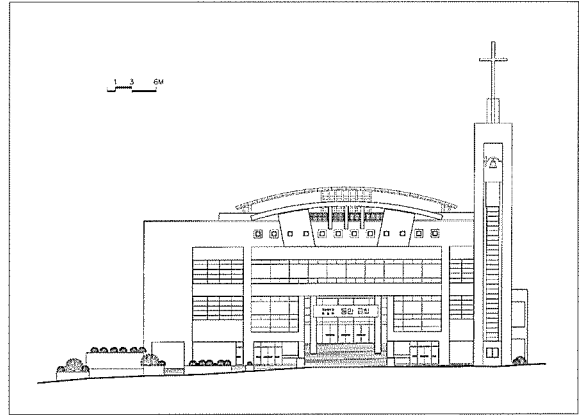
장림종 _____ 도심과 강남과는 다른 이곳 청량리지역 교회를 계획하면서 특별히 배려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영집 _____ 특별히 배려했다고 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역적으로 조금은 낙후된 지역이라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겸손한 디자인, 실용적인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단아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라 기독교문화를 잘 조성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교회가 되도록 계획시 많이 배려하였습니다.

장림종 _____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목적성의 건축, 즉 건축가 자신만의 작위적 공간이 아닌 사용



동안교회 모형



동안교회 정면도

자와 함께 하는 기능적인 건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공간 혹은 요소를 지적해 주시죠.

최영집 _____ 탑건축 사옥을 설계하면서 열악한 대지조건 속에서 계속 건축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주이자 건축가, 건축가이자 사용자 입장에서의 건축을 풀어나가는 일은 더 어려웠지만 결국 저의 건축은 바로 그 명제, 그 건축에 충실하자는 쪽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언젠가 잡지에 「작위(作爲)와 무위(無爲)」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유능한 작위보다는 유능한 무위가, 무능한 작위보다는 무능한 무위가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극명하게 단순한 형태와 구조를 표현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만들었고 혼하지 않은 디테일로 악센트를 주었습니다.

교회건축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더구나 동안교회는 건축가입장과 사용자입장이 같이 된 경우인데 우선순위를 사용자입장에서 생각하였습니다. 건축적인 욕심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극적인 연출보다는 소박하고 평안한 형태와 공간이 되게 하였고 그에 맞는 재료와 공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장림종 _____ 합목적적인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은 평면계획과 그에 따른 공간의 배치입니다. 건물 네 코너에 수직동선 코어를 배치시키고 서로가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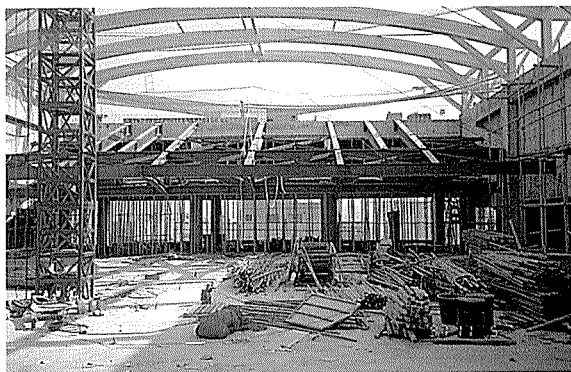


동안교회 모형

에 의해 명쾌하게 연결되어 각 공간으로 접근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면계획과 공간배치는 그대로 입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전면의 수평창과 우측면에서의 일렬의 창문들은 매우 기능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간이나 요소들은 사용자들, 다시 말해 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리고 매우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점이 최영집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동안교회의 계획의 근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최영집 _____ 교회건축의 위계는 예배공간이 단연 1위가 되겠지요. 그리고 기타 전도, 교육, 친교, 봉사 등의 기능을 건축에 담아나가는 것이지요. 각 기능들은 각 실로 구성되는 공간과 연결되는 길에 의해 조성됩니다. 이정도 규모의 교회는 그 인파로 인해 복도라기보다는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길은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으로 구분되고 건물은 내·외로 연결되며 위계에 의해 길의 폭이 달라집니다. 자유형태의 골목길도 좋지만 계획된 시원한 길도 좋습니다. 동안교회 건물내부의 길은 넓고 시원하며 그 길은 곳곳에서 쉼터를 만나고 전시물을 만나고 킷마루를 만납니다. 화장실도 만나고 음료수 자판기도 만나는 밝고 기분 좋은 길입니다. 각 기능 공간은 용도에 맞추어 꼭 필요한 적절한 천정고를 확보하고 있고 천정스페이스가 남을 경우는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본당은 바실리카양식의 현대판이 되겠는데 고창을 통해 빛과 환기를 처리하고 기동 양측의 부속공간은 추후 예배공간을 확장할 수도 있게 계획한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역이 주거지역인지라 본당을 주위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1스판을 격리하여 계획한 점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소음으로부터 주택기를 가급적 보호하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장림중 _____ 이제 동안교회의 상징성을 애기할 차례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동안 멀리서 처음 목격하는 종탑, 교회내부로 끌어들이는 진입계단, 그리고 최종적인 공간으로서의 대예배당과 함께 대예배당을 감싸는 지붕을 들 수 있을텐데요. 이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동안교회 글루램 공사현장

최영집 _____ 동안교회 두번째 성전도 뾰족 지붕 뾰족탑으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상징탑을 길의 교차점에 높게 단순하게 표현하였고 지붕의 형태와 유사한 곡선을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면서 흡인력있는 대문과 상징적인 계단, 전이와 상승 등을 되도록 절제된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맑고 밝으며 수평적인 편안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강요하지 않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라는 이미지를 그려본 것입니다.

장림중 _____ 후암동 영주교회에서와 같이 이곳 동안교회의 대예배당 천정에 Glulam Beam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Glulam Beam을 사용하면서 재료의 선택, 시공하는 동안의 에피소드, Glulam Beam과 예배당 공간과의 연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최영집 _____ 몇 년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구조용집성목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Glulam구조와 디자인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당 폭이 18m정도의 Tudor Arch 였는데 동안교회에서는 좀더 과감하게 24m폭의 Curved Arch Beam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계해보지만 참 좋은 구조이자 디자인입니다. 자연소재의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친근감있는 자재이고 경제적인 구조재입니다. 또 매력있는 디자인이 대형스팬에서도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아쉬운 것은 목구조전문가가 국내에 많지않고 경험이 부족하여 부득이 북미의 목구조 Engineer와 제조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제작하여 수입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가능성이 많은 방법이고 우리나라도 장려해야 할 공법입니다.

장림중 _____ 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계획하면서 어느 특정한 재료를 선택 구축해 낸 점은 건축가의 가장 건축적인 태도라 믿습니다. 그외에 건축가의 관심이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부 복도를 따라있는 마루, 예배당으로부터 비껴 자리잡은 성가대 공간, 지하실 주차장안의 농구



동안교회 글루램 공사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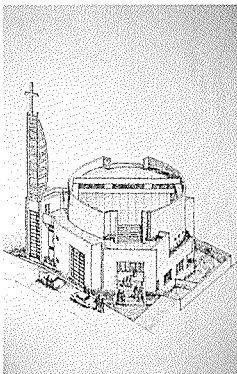
동안교회 글루램

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등이야말로 가장 기능적이고 합 목적적인 건축계획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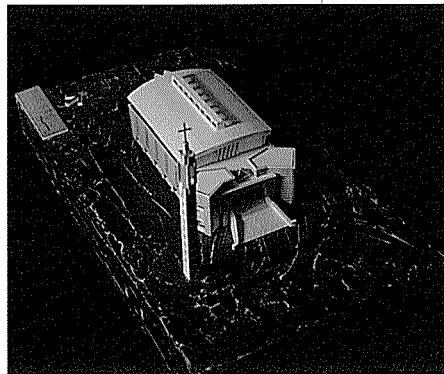
최영집 _____ 제가 건축을 접근하는 자세를 얘기한다면 나의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테마를 충실히 해석한 건축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동안교회는 동안교회에 가장 충실한 건축을 추구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작가의 개성과 의지는 엿보일 수 있겠지요. 대가가 되지 못하여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 충실한 해석이 건축의 본질일 것입니다. 실험적인 건축이 요구될 때는 실험적 요구에 가장 맞는 건축을 만들 것입니다.

장림종 _____ 다시 재료의 사용으로 돌아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재료의 선택은 선생님 건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광한의 최영집 교회건축에 관한 관찰(건축문화8904)에서 그렇고 역시 탐건축사옥에서와 같은 최영집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곳 동안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예배당에서 천정의 목재, 그를 떠받들고 있는 석재기둥, 나머지의 밝은 드라이비트 벽, 물갈기 바닥과 붉은색 계열의 양탄자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마감에서도 화강석외벽, 진녹색의 드라이비트, 지붕부분의 노출목재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고유한 강한 색조를 띠고 있고, 전체 외벽에서 차지하는 면적으로 보아도 서로의 상당한 콘트라스트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동안교회가 갖는 건축적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맨 처음 언급하신 User입장의 건축과도 상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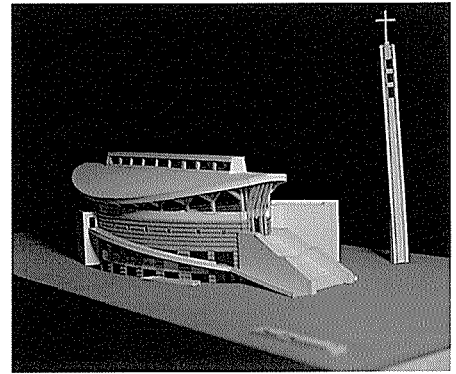
최영집 _____ 적절한 재료의 구사는 건축에서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한가지 색이나 한가지 재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감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재료와 색상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Mono-Tone이 필요한 경우와 천연색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면서 말입니다.



G교회 투시도 스케치



S교회 모형



O교회 모형

건축은 어차피 흑백사진이 아닌 총천연색 현실입니다. 자연스러움이 전제되어야 하고 조화가 건축의 본질입니다.

장림종 _____ 바로 이러한 다양한 기능의 수용과 새로운 재료의 선택이 앞으로의 교회건축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계획방향이라 생각하십니까?

최영집 _____ 교회의 계획방향은 개교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재료는 건축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겠지요.

장림종 _____ 처음 언급하였던 것처럼 교회건축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몇몇의 건축가 중의 한 분으로서 교회건축을 해오고 있는 다른 분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축을 정리해 주시지요. 건축가 김수근외에 유걸, 최동규, 김영섭 등과 함께 말씀이죠.

최영집 _____ 다른 분들이 더 좋은 건축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는 훌륭한 건축가들이지요. 해법과 스타일들이 틀리지 본질이야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같은 대지위에 각자 설계한 것을 같이 지어서 30년동안 관찰하고 Report를 써보면 건축을 규명하는데 공부가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림종 _____ 끝으로 최영집 선생님의 교회건축에서 발견된 즐거움들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즐거움들이 선생님 건축작업 속에서 계속 이어져가길 바랍니다.

최영집 _____ 이런 기회에 건축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좋은 건축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